Community Collective Impact 2년의 이야기 · 생생한 마을 컨소시엄

예술 소비자에서,
마을의 생산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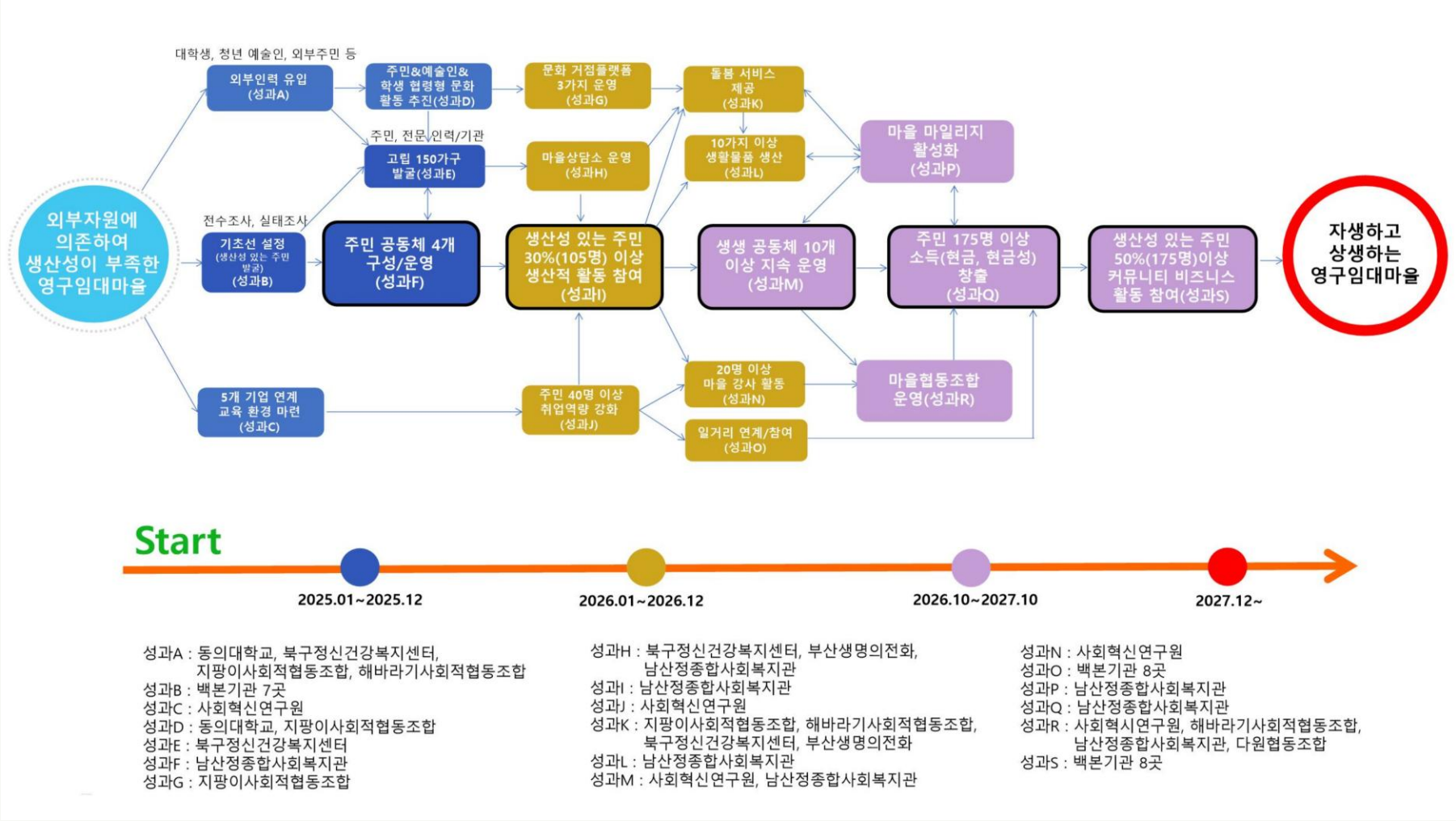
백본기관 성과공유 ·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평수

영구임대마을의 순환 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구축

2026. 11. 23.

우리가 함께 그린 성과체인

생생한 마을 성과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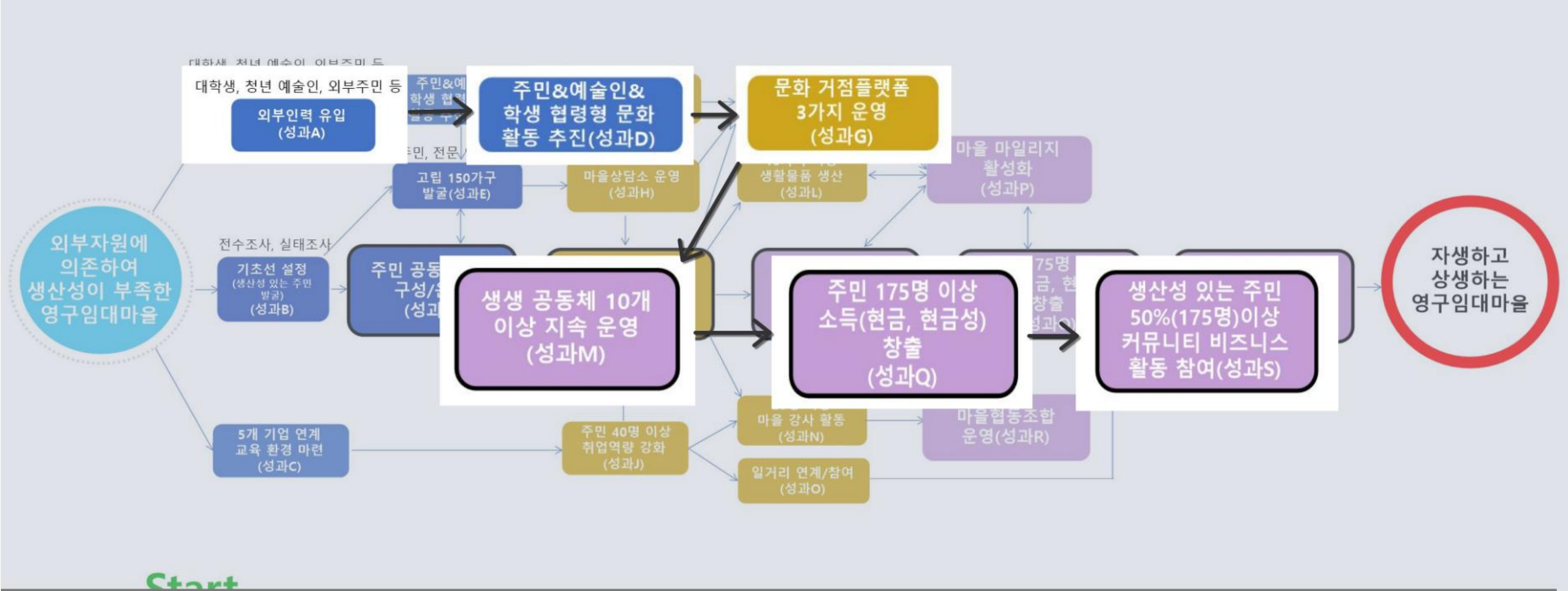
성과A : 동의대학교,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사회적협동조합
성과B : 백본기관 7곳
성과C : 사회혁신연구원
성과D : 동의대학교,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성과E :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F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성과G :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성과H :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생명의전화,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성과I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성과J : 사회혁신연구원
성과K :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사회적협동조합,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생명의전화
성과L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성과M : 사회혁신연구원,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성과N : 사회혁신연구원
성과O : 백본기관 8곳
성과P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성과Q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성과R : 사회혁시연구원, 해바라기사회적협동조합,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다원협동조합
성과S : 백본기관 8곳

우리가 함께 그린 성과체인

생생한 마을 성과체인



2차년도 성과

| 성과A 외부인력 유입
청년 문화예술인 10명 유입 → 주민 프로그램 3개 운영

| 성과D 주민·예술인·학생 협력형 문화 활동
주민·예술인 10명 8회 전원 참석 → 마을 애칭·CI·굿즈 기획

| 성과G 문화 거점플랫폼 3가지 운영
어울락 공방 10회 운영 → 주민 11명, 평균 출석 80.9%

3차년도 기대 성과

| 성과M 생생 공동체 지속 운영
내림(예술 두레) 공동체 운영 → 주민 생산 공동체 지속

| 성과Q 주민 소득 창출
두레 생산품 유통 → 주민 소득 창출

| 성과S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참여
소득을 공동체·타 공동체 서비스에 재투자 → 마을 안 순환

우리가 함께 그린 성과체인

성과체인 속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의 네 가지 역할

성과F
주민 공동체 구성·운영

→

성과I
생산성 있는 주민 30% 이상 생산적 활동 참여

→

성과M
생생 공동체 지속 운영

→

성과S
주민 50% 이상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참여

→

우리의 목적지
자생하고 상생하는 영구임대마을

↑ 지팡이 · 성과A
외부인력 유입
예술인 **10**명 유입 → 3개 프로그램 운영

↑ 지팡이 · 성과D
협력형 문화활동
주민·예술인 10명 → 8회 전원 참석

↑ 지팡이 · 성과G
문화 거점플랫폼
어울락 공방 10회 → 주민 11명 참여

↑ 지팡이 · 성과K
돌봄 서비스 제공
행복마을 이웃 11명 → 평균 출석 80.9%







사례 1 · 성과D 협력형 문화활동

밥 한 끼로 시작된 꿀벌 네트워크

주민과 예술인 10명이 함께 식사하며 8회 모두 빠짐없이 모인 결과, 주민이 직접 마을 애칭과 CI, 굿즈를 기획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2 · 성과G 문화 거점플랫폼

손과 향으로 마음을 돌본 오감만족

매주 수요일 어울락을 공방으로 10회 운영해, 주민 11명 중 평균 8.9명(80.9%)이 꾸준히 찾는 생활문화 거점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만든 감정 디퓨저와 응원 향수는 향 생활용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례 3 · 성과A 외부인력 유입 · 성과D 협력형 문화활동

서로를 빛나게 하는 신데렐라 프로젝트

금요일마다 호흡하고, 바르게 서고, 걷는 움직임 수업을 진행해, 주민 10명이 9회째 함께하며 연말 무대에 서는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례 4 · 백본기관 협업

혼자서는 못 했을 일, ‘행복마을’ 협업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성과E 고립가구 발굴 · 성과H 마을상담소

마음을 살피고 — ‘행복마을’ 이웃 대상 집단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 성과K 돌봄 서비스

예술로 잇고 — 공예·아로마·움직임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 성과F 주민 공동체

자리를 마련하고 — 어울락과 강당을 제공하고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상담과 예술을 한자리에서 진행해, 고립됐던 이웃 11명 중 평균 8.9명이 마지막 회기까지 함께했습니다

7월 중간점검에서 받은 지적

“커뮤니티 비즈니스로는 보이지 않는다”

주민은
소비자 → 생산자

활동은
회기 → 공정

결과물은
작품 → 상품





우수사례 · 성과G에서 성과L로

주민들의 작품이 마을의 비즈니스 제품으로

향기

감정 디퓨저·롤온·응원 향수 → 향 생활용품

손길

라탄·칠보·레진·도우아트 → 생활재를 만드는 손기술

이야기

꿀벌 반상회의 마을 애칭·CI·굿즈 논의 → 마을 브랜딩의 출발점

3차년도 방향

내년,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의 진화
문화적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도입

생산

예술 두레

향·흙·나무 두레가 비즈니스 생산품(방향제, 디퓨저, 도자기 그릇, 목공 생활재)을 생산합니다

브랜딩

마을 브랜드

두레 생산품과 백본기관 생산품을 하나의 마을 브랜드로 묶습니다

유통

남산정 마을 협동조합 구축

남산정의 협동조합과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유통과 판매를
주민이 맡도록 합니다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은 조력하고, 생산과 유통의 주체는 남산정 주민입니다

3차년도 · 성과체인 속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기반에서 생산·브랜딩·유통으로

2차년도에 쌓은 기반

성과A
외부인력 유입

성과D
협력형 문화활동

성과G
문화 거점플랫폼 운영

성과K
돌봄 서비스 제공

3차년도에 조력할 성과

생산 → **성과L**
10가지 이상 생활물품 생산
예술 두레의 비즈니스 생산품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브랜딩 → **성과Q**
주민 소득 창출
비즈니스 생산품 브랜딩으로 생산품 가치 높이기

유통 → **성과R**
마을협동조합 운영
남산정 신규 협동조합 X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의 유통·판매 협력구조

→ 자생하고 상생하는 영구임대마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 생생한 마을 컨소시엄